

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 지속연주지원 3차 지원심의 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6년도 음악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3차 지원심의
- 회의일시 : 2016. 12. 14(수)
- 회의장소 :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리딩룸1

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지속연주지원 사업 3차 심의는 작품의 예술성(30%), 사업의 효과성(40%), 공연단체의 역량(30%)을 기준으로 각 단체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통해 최종 지원단체를 선정하였다.

이번 심의에서는 모두 10건의 지원사업을 심의하였으며, 사업의 취지 및 예술성, 사업의 형식 등에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7건이 선정되지 못하였다. 그 내용으로는 비관현악 부문 4건, 재연곡이 아닌 초연곡 2건,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1건이 있다.

본 사업의 목표는 국내 창작 관현악곡이 초연으로 그치지 않고, 안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기반마련과 국내외 유통 연계를 통한 창작음악 활성화에 있다. 전반적으로 이번 공모에 지원한 사업들이 국내 창작 관현악곡에 대한 인식과 기여도가 낮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.

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들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. 선정된 사업들이 국내 창작 관현악곡의 발전에 많은 기여도를 보여주기 바란다.

2016년도 음악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사업 선정 심의위원 일동